메트로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제2823호 www.metrobusan.co.kr

곳간 빈 기업들 '정신나간 돈 잔치'

'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 등기이사 연봉 5억 훌쩍 넘고 혈세 운영 공기업들 근속직원에 수백만원대 선물 관례

사례1 오너인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부부를 포함한 동양그룹의 등기이사 10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억67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4억4600만원에 비해 27.1%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경영진에 큰 돈을 챙기는 사이 그룹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당기손실은 1436억원에 달해 전년도 935억원 순손실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사례2 교통안전공단은 2008년과 2009년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82명에게 1인당 순금 30돈(약 600만원)을 제공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10년부터는 140여 명에 달하는 장기 근속자에게 현금 2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지급했다.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은 이처럼 과도한 기념품 예산은 편성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안전공단이 2008~2013년 이런 용도로 쓴 돈은 무려 7억5480만원에 달한다.

◆ 도넘은 잇속 챙기기 - 국민들 분노 수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기업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재벌 총수는 막대한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왔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들도 '기념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69억원 적자를 기록한 동양시멘트는 현재현 회장 등 등기이사 10명에게 1인당 평균 2억29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는 2011년 1인당 평균 1억7300만원보다 31.8% 인상된 셈이다. 2011년 8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22억원 적자로 돌아선 동양네트웍스도 등기이사 8명에게 1인당 3억200만원의 연봉을 제공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장기간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사익을 위한 그룹의 최고경영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3416명에게 순금과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데 34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 이후 장기 근속자 854명에게 4억8362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와 메달, 열쇠와 현금 등을 포상했고 한국감정원도 장기 근속자 426명에게 1억6540만원을 들여 순금으로 제작한 기념주화를 지급했다.

이뿐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로 온 국민이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업자들은 4년간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 명목으로 1조225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가동 시 예상되는 수익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 8억원의 국민 혈세가 발전사들의 '무위도식(無爲徒食)'에 쓰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혈세 덕분에 이들 발전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900만원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 2817만원의 3배에 달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기업 누적 적자가 불어나는데도 이런 식으로 내부 잔치를 벌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전력난 물가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씁쓸함을 넘어 분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kmjoo@metroseoul.co.kr

1600개 소원의 터널 - 진주유등축제 장관 30일 오후 경남 진주시 남강변에 소원을 담은 유등길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진주 남강 일대에서는 1일부터 13일까지 2013 진주유등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지는데 유등 1600여 개가 선보인다. 이 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15승 내년에"… 메이저리그 첫해 14승8패로 마감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5승 사냥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4이닝 동안 8안타 1볼넷을 내주며 4실점하고 0-2로 뒤지던 5회초 리키 놀라스코와 교체됐다. 팀은 1-2로 패했다.

이로써 류현진은 빅리그 진입 첫 정규시즌을 14승8패로 끝냈다. 평균자책점은 2.97에서 3.00으로 올라가 2점대 유지에 실패했다.

류현진이 올 시즌 30번의 등판에서 5이닝을 못 채우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투구 수도 76개로 평소보다 적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다저스는 류현진과 놀라스코 외에도 크리스 카푸아노와 크리스 위스로, 브라이언 윌슨, J.P 하웰, 펜리 앤선 등을 모두 마운드에 올렸다. 4일부터 동부지구 1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지를 디비전 시리즈(5전3선승제)를 앞두고 투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류현진은 7일 벌어질 3차전에 등판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멋진 유종의 미는 거두진 못했지만 올 시즌 류현진이 보여준 활약상은 대단하다.

메이저리그 전체 신인 투수들 가운데 셸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15승9패)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승수를 쌓았고, 팀에선 클레이튼 커쇼(16승9패), 잭 그레인키(15승4패)와 함께 선발 로테이션을 든든히 책임졌다.

또 다저스 역대 신인 투수들 중 2002년 이시이 가즈히사(14승10패) 이후 11년 만에 최다승의 주인공이 됐다.

◆ 추신수는 출루율 0.423 기록

일면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는 내셔널리그 전체 2위인 출루율 0.423을 기록하며 정규시즌을 마무리했다.

전날 300출루 기록을 달성한 추신수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4회 교체됐다. 팀은 2-4로 패했다.

/조성준기자 when@

"왕서방 쇼핑 오신다" 한국 신난 일주일

중국의 명절인 국경절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화장품 매장 앞에는 중국어로 된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늘부터 7일간 국경절 연휴 15만명 방문 기대 내수불황 늪 국내 유통가 '대륙발 특수'에 화색

30일 찾은 서울 명동 중앙로는 양손에 쇼핑백을 든 중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길을 따라 늘어선 화장품숍과 의류매장엔 중국어 안내 게시판이 설치돼 있었고, 점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단체 여행을 왔다는 쉬지엔(30)은 "일주일간 머물며 명동·강남 등을 돌아보고 평소 사고 싶었던 한국 화장품과 옷을 쇼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10월 1~7일)가 시작되면서 요우커(游客: 중국인 관광객)가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본 방사능 파문으로 이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수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보다 64.5% 늘어난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수 불황에 허덕이던 국내 유통가는 국경절 대목을 맞아 씀씀이가 큰 '왕서방'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명 백화점들은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 요원들을 2배 더 늘리고, '황금돼지' '한국 왕복 항공권' 등 경품을 내걸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주요 백화점은 이번 연휴 기간 지난해 대비 200% 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장품 업계도 축제 분위기

화장품 업계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일대와 면세점을 중심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뷰티 컨설턴트를 추가로 투입하고,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과 중국어 안내물을 전면 배치했다. '덤'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성향을 반영해 1+1 행사도 마련했다. 미샤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명동·동대문 상권과 면세점 등에서 한정 판매한다.

일부 브랜드숍은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은련카드(은행연합카드사)나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밥솥 생활가전 업계들 역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국경절 기간 면세점에서의 밥솥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0% 성장한 만큼 올해는 면세점에 중국어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통역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했다. 리홈쿠첸도 면세점에서 중국어 음성 기능을 탑재한 밥솥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붉은색 밥솥을 판매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은 한 제품을 사더라도 대여섯 개씩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국경절 중국 손님 맞을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_w@metroseoul.co.kr

전문대 수시·정시 두차례로 축소

2015학년도부터 적용

2015학년도부터 전문대 수시·정시 모집이 모두 2차례로 축소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입학전형 개선방안 및 201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최대 5차례까지 실시하던 수시·정시의 모집을 2015학년도부터 모두 2차례씩으로 축소 운영하고 모든 전문대학이 같은 기간 전형을 실시하게 했다.

단 수시·정시 모집을 1차례만 하는 대학은 두 시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모집을 진행하면 된다.

2015학년도 수시는 2014년 9월 3~27일, 11월 4~18일, 정시는 12월 19일~2015년 1월 2일, 2015년 2월 10~14일에 각각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대학 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psi.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 걸린 원전 한달 한번꼴 고장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가 사고와 고장으로 매달 1번꼴로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안전불감증 우려와 원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고장으로 정지된 경우가 60회에 달했다. 원전 고장은 계측제어 결함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 결함 18건, 인적 실수 11건, 기계 결함 9건, 외부 영향 2건 등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25건(신고리 11건 포함)으로 가장 잦았다.

6개월만에 '눈물의 퇴임'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 채동욱 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욱 소송 취하

긴 법정다툼 인한 가족 고통 우려 "유전자 검사 할 것"

혼외아들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채 전 총장은 30일 퇴임식과 별도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시민으로 돌아가며 "제목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유전자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개법정에서의 진실 공방 및 의혹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가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혼외아들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전 총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치러진 퇴임식에 부인·딸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혼외자녀 논란을 의식한 듯 "비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 임씨 집 가정부 "채 총장 자주 와"

관련 TV조선은 이날 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 집에서 4년 7개월간 일한 가정부 말을 인용, "채 총장이 임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을 다정한 아버지처럼 돌봐줬다"고 보도했다. 또 채 전 총장이 자필로 '아빠'라고 적어 가정부에게 보냈다는 연하장도 공개했다.

/김유리기자 anicus00@metroseoul.co.kr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료 외에 연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누가 가입해야 하는가?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이 가입 대상이고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이 100㎡ 초과(대수선의 경우 200㎡ 초과)하면서 총 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Q 고용보험의 혜택은?

A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험의 혜택은?

1인 이상 고용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A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 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애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Q 보험료를 경감 또는 보조받는 방법이 있는가?

A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

Q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Q 법정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A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정해진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A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리=김기자

짝 없는 부산청춘 '우정촌'으로 모여라!

SNS '톡톡부산' 친구 대상 2~3일 기장문화예절학교서 소개팅 행사

부산시는 2일과 3일 이틀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톡톡부산'과 친구를 맺고 있는 20대 남녀 20명과 함께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2013 톡톡부산 청춘소개팅 시즌2-우정촌'을 연다.

톡톡부산 청춘소개팅은 부산시가 SNS를 사용하는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로 지난 4월 '시즌1-런닝맨'에 이어 두 번째다.

시즌2는 SBS 교양 프로그램 '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톡톡부산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정해진 활동 미션과 교양 강의,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지역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참가자는 사전 선정한 톡톡부산 이용자들로 친구 수가 많은 SNS 파워유저 및 팬 페이지 전문 운영자, 지역 및 대외 활동에 적극적인 대학생 등이 대거 참여한다.

첫날은 야식을 걸고 펼쳐지는 복불복 피구 대결, 전문 판소리 강사로부터 배워보는 판소리 수업, 우정을 나눈 쪽지와 함께 부산을 알아보는 미니 골든벨 퀴즈 등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1박2일 동안 우정과 마음을 나눈 참가자들이 최종 커플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선택에서 짝이 된 커플 전원에게 커플 영화관람권을 증정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팀은 베스트 커플로 선정해 외식 식사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공식 페이스북 '톡톡부산(http://www.facebook.com/BusanCity)' 및 공식 블로그 '블루부산(http://blog.busan.go.kr)'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참가자들과 온라인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잔종 재미를 더한다.

지용범 부산시 미디어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SNS상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다이내믹 부산'의 이미지를 온라인에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선하고 다양한 SNS 이벤트를 통해 활기 넘치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톡톡부산 청춘소개팅은 지난해 '제1회 부산시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에 출품된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시직구장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만나 열띤 응원전을 펼쳤던 톡톡부산 청춘소개팅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톡톡부산이 출제한 홍보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한 커플을 가리는 청춘소개팅 시즌1 '런닝맨'을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문의 (051)888-1174

美 센트럴 오클라호마大 총장단 인제대 방문

미국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UCO) 총장단 일행이 지난 27일 인제대학교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중심주립대인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교는 123년 전통의 명문 대학교로 현재 1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물리학 분야의 명성과 공인회계사 합격률(CPA)이 높은 대학으로 유명하다.

이날 인제대와 UCO는 학술 연구 활동과 교수와 학생의 인적 교류를 통한 양 대학 간의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제대 이원로 총장은 "양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욱 우수한 교환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대와 UCO는 지난 2012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매 학기마다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희균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영·호남 대학생들 손잡고 '백의종군로' 행군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김창원)과 전남도립대학(총장 구충곤)이 백의종군로 행군을 통해 '영·호남지역의 상생도모'에 나섰다. 지난 27일 펼쳐진 이번 행사는 백의종군로 탐방을 통해 지역 역사 지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영·호남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남 구례산동(이순신샘)에서부터 섬진강(지리산 둘레길 화개장터), 관유 포남해에 이르는 남해안 이순신길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두 대학의 학생들의 기념 촬영 모습. /뉴시스

뉴스&뉴스

우리수산물 방사능 분석 … 시민 20명 참여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국민들의 방사능 관련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분석 국민 참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3차 방사능 분석 과정은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지원 대회의실 및 시험분석실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문의 (051)602-6001

하동군 섬진강 트레킹 '2013 군민걷기대회' 성료

● 경남 하동군은 지난 28일 오전 섬진강 트레킹 코스에서 '2013 군민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섬진강 하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면서 하동의 미래 '알사판 프로젝트'의 성공 기원과 건강 도시 하동군의 위상에 걸맞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포츠 7330(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조유행 군수를 비롯해 이종훈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윤종원 도의원 등 지역 기관 단체장과 생활체육회 소속 회원,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하동군생활체육회(회장 최오근)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송림공원에서 식전 공연에 이어 간단한 개회식과 준비운동, 걷기대회,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35만 우선접종자 대상 오늘 서구부터 시작

부산시는 올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3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나선다.

이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내일 1일 서구를 시작으로 4일부터는 남구에 이어 14일부터 모든 구·군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줄 계획이다.

인플루엔자(일명 '독감')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유행해 노약자·취약계층의 건강 악화와 사망률을 높이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이다.

보건소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자 외 일반인의 보건소 유료 접종은 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거리가 먼 병·의원을 오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유료 접종을 해줄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은 병·의원이나 건강관리협회, 결핵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접종 개시 초기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별로 사전 예약·무료 번호표 등 지역별 분산 예방접종 방안을 마련,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일정 등을 미리 알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 집 국 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이사	김명룡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17

[illegible]

<2013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20초만에 매진 '드페' 막 오른다

오늘~13일 진주서 드라마틱 콘서트 등 행사 열려 – 미쓰에이 등 ★ 밟길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인 2013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Korea Drama Festival)이 10월 1~13일 경남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과 남강 둔치에서 개최된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한국 대중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드라마를 주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상식, 드라마 OST 콘서트, K-팝 스타들의 콘서트, 전시·체험 거리로 구성된 야외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시아의 영상 산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포럼, 일반인이 참여하는 스토리 공모전이 함께 열린다.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013 코리아드라마어워즈는 2일 오후 6시 진주시 초전동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지난 1년간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된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리아드라마어워즈는 이보영 등 5명이 연기대상 후보로 올라와 있으며 연기대상·작품상·작가상 등 총 14개 부문의 수상작을 가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레드카펫이 열려 진주시 정역을 뜨겁게 달군다. 특히 올해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입장권은 지난 28일 접수 시작 20초 만에 매진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한편 K-팝 스타들이 펼치는 한류드라마틱콘서트와 드라마 OST 콘서트는 각각 3일 오후 6시, 5일 오후 7시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한류드라마틱콘서트에는 미쓰에이, BAP, 에픽하이, 레인보우 등 K-팝 스타들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중국 유명 가수 황립, 황준도 출연해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올해 야외 프로그램의 백미는 남강 위에 띄우는 부교와 수상키피, 드라마 같은 피선의 세계를 콘셉트로 조성됐다. 길이 180m의 부교를 강물 위에 설치하고 화려한 조명을 밝혀 분위기를 돋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코리아드라마어워즈는 3500석 규모의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 작년에 비해 티켓 분량이 2배가 넘는 데도 입장권이 20초만에 매진됐다. 작년에 1분만에 매진됐던 데 비해 반응이 더 뜨겁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

<저비용항공 부문>

에어부산 '고객만족도 2관왕'

표준협회 평가 1위 이어 능률협회서도 최고 인증

에어부산이 한국능률협회 주관 KCSI(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저비용 항공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KCSI 조사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원의 가구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성과는 지난 6월 한국표준협회 주관 KS-SQI 저비용항공 부문 1위에 이은 것으로, 에어부산이 한국의 양대 서비스 평가기관(한국능률협회·한국표준협회)으로부터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보유한 저비용 항공사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 2011년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정부 유일의 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인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했고 저비용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안전우수항공사' 표창을 받았다. 또 올 4월에는 국토부 '2012년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에어부산이 이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사업 초기부터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실용항공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서비스 현장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측은 "오는 10월 27일 취항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인정받는 귀한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하균 기자 jhk@

온 종합병원 재부남해군불교신도회 의료지원 협약 부산 온 종합병원 (병원장 정근·오른쪽 둘째)과 재부남해군불교신도회(왼쪽 둘째 문옥두 회장)는 지난 28일 낮 12시 온 종합병원 3층 소회의실에서 의료 지원 협력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탈박물관 보수공사 12월 10일 재개관 예정

경남 고성탈박물관(관장 이도열)은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장고 보수공사와 전시개편을 위해 임시 휴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휴관 기간 동안 수장고 출입문과 수장대 교체, 교육실 멀티미디어 설치, 상설전 전시 교체, 기획전시실 전시교체 등 보수공사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탈박물관 홈페이지(tal.gose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사무실(055-672-8829)으로 전화하면 된다.

진주유등축제 달구는 산청엑스포 홍보 열기

경남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가 1일부터 13일간 진주유등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에 나선다. 산청엑스포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 하루 평균 3만~4만명의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지만 미리 효율적인 관람동선을 알아보는 등 관람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산청 인근에서 열리는 진주유등축제장을 찾아 홍보관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문의 055)970-8675

2013

부산은행 창립46주년 기념콘서트

동행

김건모 신효범 이영현 남궁옥분 홍경민

2013.10.19(토)
- 1회 공연 : 오후 3시
- 2회 공연 : 오후 7시

벡스코 오디토리움

차가운 바람이 짙어지는 늦은 가을을 맞아
희망의 온기를 드리는
부산은행 창립46주년 기념콘서트 – 동행을 선물합니다

- 관람신청기간 : 9월 27일(금) ~ 10월 4일(금)
- 관람신청방법 : 부산은행 전지점 또는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수입차 수리비 낮아질듯

차 부품값 공개 의무화

'부품값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 낮아질까?'

국토교통부가 29일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 등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수리비가 내려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르는 게 값이었던 수입차 정비 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그 핵심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시책으로 수리비가 조금이나마 내려갈 공산이 크다.

다만 부품 가격을 공개해도 공임 가격은 여전히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 비용 인하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차 부품은 물론이고 정비나 수리를 딜러 업체가 독점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가격 경쟁이 심해 차만 팔아서는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부품과 공임비로 이를 보전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임은 지역, 딜러마다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 이를 이용해 은근슬쩍 전체 수리비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 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했다.

/박상훈기자

LTE-A 체험차량 운영 모델들이 30일 SKT 본사 앞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와 SKT 공동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벤츠와 SKT는 서울 강남역과 홍대를 왕복하는 A 클래스 월 LTE-A 체험 차량 20대를 2일부터 5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운영할 예정이다. /SKT 제공

휴대전화 요금 연체 74만명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들이 74만명을 넘었으며, 연체금은 총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3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이통 3사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는 KT 29만5414명, SK텔레콤 22만9277명, LG유플러스 21만9731명 등 총 74만4422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금액은 KT가 10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732억원, SK텔레콤 41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영기자

월 8만원으로 레이 탄다

SaveCar

선진국형 렌트 '세이브카'

신차를 구매할 때보다 월 50만원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렌터카가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선진국형 렌트 시스템을 자랑하는 세이브카(www.savecar.co.kr)다.

세이브카는 차량을 소유하는 데 따른 유지, 관리 및 기타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한 차량 공유 시스템으로 젊은 실속파를 겨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금·보험·세자 등 유지비가 월 65만원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세이브카의 기아자동차 레이를 이용하면 월 8만~16만원만 있으면 된다.

특히 기존 렌터카의 경우 24시간 사용 비용 6만원에 자차 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되는 데 반해 세이브카는 24시간 대여 시 10시간만 과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자차 보험료 포함 3만9700원으로 렌터카 대비 30% 이상 경제적이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이용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최초 가입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에 가입하면 이후 로그인 한 번으로 PC·모바일상에서 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폭 축소

내년에 활용 가능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 정부안을 46조5446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보다 11.6% 늘어난 규모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총 지출도 18조2억원으로 올해보다 4.7% 늘어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9조3641억원이 책정됐다. 생애최초와 일반주택 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 구입자금 대출 예산으로 3조원, 전세자금대출 예산으로 4조7000억원, 전세임대대출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2조5000억원이 올해는 이자보전 형태로 지원되면서 주택 구입자금 예산에 빠졌지만, 내년에는 구입자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예산에서 20%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도 늘릴 수 있다"면서 "향후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주기자

고금리 유혹… 개미 1조4000억 날렸다

법정관리 신청 동양그룹 CP투자 피눈물

예상은 개미들만 또 당했다.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금융 상품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자그마치 1조4000억원 수준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CP) 중에서 동양증권 판매 기준으로 약 4563억원어치가 개인투자자 1만5900명에게 판매됐다.

회사채의 경우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원어치를 매입했다.

대부분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CP와 달리 회사채는 동양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들을 통해서도 팔렸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유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담지 못해 개인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회사채와 CP에 붙는 조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연 7~8%대 고금리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붙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청산 직전은 아니더라도 액면가의 20%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웅진·STX 사태 때처럼 동양 역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성준기자 zen@metroseoul.co.kr

체크와 신용의 마술 같은 콤보 마술사 최현우(오른쪽)가 1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명동지점에서 '씨티 체크+신용카드' 출시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4일까지 씨티 체크+신용카드 출시 이벤트로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마술을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동양 3개 계열사 부도 면해

동양매직 매각 사실상 무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에 결국 반전은 없었다. 30일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1100억원 규모이며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만기 도래 회사채와 CP는 총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일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는 부도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자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도 가압류·가처분·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해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매직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은 이날까지도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등록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

KTB PE는 23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무적 투자자(LP) 구성 등 신청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양매직 인수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은 "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지분은 동양이 100% 보유하고 있다. /차성준기자 zen@

부자에 '펑펑쓰는' 카드사

VVIP카드 서비스 152억 지출로 23억 적자

주요 카드사들이 지난해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에 152억원을 지출해 23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전업카드사 6곳은 지난해 VVIP 카드 운영으로 23억2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들 카드사가 VVIP 카드로 벌어들인 돈은 128억38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과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들어간 비용은 151억6000만원에 달했다.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는 17억5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신한카드는 VVIP 카드 고객에게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을 중복으로 적립해주는 등 큰 혜택을 주다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도 적자를 봤다.

금감원은 최근 VVIP 카드 운영에 따른 손익을 점검할 것을 카드사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VVIP 카드 점검을 통해 손익 균형을 맞추도록 지도했다"면서 "VVIP 카드 적자를 다른 부문으로 메우지 말라는 의미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minjun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1996.96 (-14.84)	534.89 (-2.89)

금리	환율
2.82 (-0.00)	1073.00 (-2.00)

뉴스 & 뉴스

생산인구 6명 노인 1명 부양

●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7%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7.7 수준이었다. /정윤희기자

광공업 생산 9개월래 최대

● 완성차 업계들의 파업 종료와 갤럭시노트3 등 IT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8월 광공업 생산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2.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7월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0.3포인트 올라 5개월째 증가세다.

이에 따라 경기가 1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회복기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국명기자

뉴스 & 뉴스

미분양주택 2개월 연속 증가

●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19가구로 전달 대비 447가구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4·1 대책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감소하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8월 들어 기존 미분양 4900여 가구가 해소됐지만 수도권 신규 분양 영향으로 5300여 가구의 미분양이 새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민수기자

기업80% "베낀 자소서 구별"

● 인터넷에서 자기소개서를 짜깁기로 베껴서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5%(140명)는 베껴 쓴 자기소개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나치게 뛰어난 자기소개서는 의심부터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알려진 자소서 원칙과 차이 나는 대답도 많았다.

자기소개서 분량이 1000자 내외라도 굳이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사담당자가 64.8%나 됐으며 취득한 자격증은 직무와 상관없더라도 모두 쓰는 것이 좋다(75.3%)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근형기자

휴대전화 가격인하 필요

●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시내 128개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통신 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로 '고가의 단말기 가격'(38.7%)이 꼽혔다. '보조금 과열경쟁'을 꼽은 응답자는 25.5%, '정부 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2%에 달했다.

통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38.5%가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 가격 인하'를, 22.3%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사장경쟁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20.3%),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11.5%)이 뒤를 이었다.

/박채영기자

삼성 베트남과 동반성장 추진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중기 공동참여 검토

삼성이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활동에 본격 나선다.

삼성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확보한 다양한 경제 개발 노하우를 자사의 사업 역량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당국에 필요한 복합 인프라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신뢰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진 점, 경제·통상 분야 협력 관계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베트남과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

삼성은 30일 삼성물산 정연주 부회장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하노이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삼성물산 상사 부문 김신 사장을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정기영 사장, 삼성엔지니어링 박중흠 사장 등이 동행했다.

삼성 방문단은 이날 응웬 떤 중 총리를 예방하고, 하노이 시내 정부청사에서 기획투자부 응웬 반 쭝 장관과 만나 전력·도시 개발·공항·항만·조선 공공 분야 정보통신 사업 등을 포함하는 베트남 정부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의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삼성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전력 개발 계획과 관련한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하노이 도시개발 사업, 국영 조선소 경영 정상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하노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부 관계자와 학계, 재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가졌다.

한편 삼성은 베트남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진출 여건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그룹 관계사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한편, 관련 업종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용기자 sjy403@metroseoul.co.kr

대형마트에서 스쿠터 사세요 롯데마트는 30일 S&T 모터스와 함께 10월 9일까지 전국 70개 매장에서 스쿠터를 선보인다. 스쿠터는 50cc급 뉴티5(UF)와 110cc급 티티(110), 125cc급 러브125 등 세 가지 모델로 대리점 판매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글로벌 브랜드 삼성 8위·현대차 43위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 사상 첫 40위권에 진입했다.

30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90억 달러(한화 약 10조원)의 브랜드 가치로 지난해 53위에서 10단계나 오른 43위를 기록했다.

해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위권 안에 안착한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대 브랜드의 평균 브랜드 가치 증가율 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현대차는 지난 2005년 국내 자동차업계 중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 진입 이후 9년 연속 선정됐으며 당시보다 브랜드 가치가 160% 증가했다. 기아차도 지난해 87위에서 올해 83위로 4단계 뛰며 선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글로벌 브랜드 세계 8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갤럭시 S4 1000만 대 돌파 등으로 지난해 329억 달러보다 20.4% 상승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18대1…삼성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

올 하반기 삼성그룹 신입 공채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7일 마감한 신입사원 서류 심사에 무려 10만여 명이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 신입사원 55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경쟁률은 18.2대 1에 달한다.

이는 약 8만 명이 지원해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치다.

이번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뽑는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생명 등 25곳이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다음달 13일 국내 5개 지역과 외국 3개 지역(로스앤젤레스·뉴욕·토론토)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르게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IT시스템 혁신으로 KT 제2 도약한다"

KT가 유무선 전산 시스템 통합을 비롯한 내부 IT 전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표현명 KT T&C 부문 사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BIT(Business & Information system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컨버전스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BIT 프로젝트는 ▲서비스제공플랫폼(SDP)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CMS) ▲정보통합시스템(BI/DW) ▲유무선통합영업지원시스템(BSS) ▲운영지원시스템(OSS) 등 6개 분야별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OSS는 내년 2월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개 분야별 시스템은 이미 완성된 상황이다.

KT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 당초 업계가 예상한 2조원보다 획기적으로 절감한 9000억원을 투입해 BI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내부 2800명의 IT 전문가를 육성하고 대규모 처리 용량이 요구되는 통신회사의 상용 시스템에 KT의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표 사장은 "경영 속도 향상 및 고객 중심 서비스로의 혁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이 가능해졌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sjy403@

표현명 KT T&C 부문 사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는 BIT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컨버전스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KT 제공

metro Russia

показала всем свинину

metro HongKong

노점상 단속반 살해범 사형 집행

중국에서 노점상 단속에 맞서 도시단속반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샤쥔펑의 형이 25일 집행됐다. 샤쥔펑은 2009년 5월 상품을 몰수하던 단속반이 자신을 구타하자 분에 차 자판에서 칼을 휘두르다 단속반 두 명을 살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힘없는 노점상과 행정단속반의 싸움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낳으며 중국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metro Italy

이탈리아 '평범한 슈퍼히어로' 화제

이탈리아에서 경제위기의 생활상을 '평범한 슈퍼히어로'로 표현한 미술 작품이 화제다. 최근 로마의 한 갤러리에서 생활상을 '평범해진 슈퍼히어로'의 모습으로 그린 화가 마르타 가르지올로의 개인전이 열렸다. 경제위기 속 슈퍼히어로 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서 그는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등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 물건을 파는 모습, 노숙자가 된 모습 등을 그렸다.

metro Sweden

"동성애자 명단 있었다니까요"

스톡홀름 경찰청 전 직원

최근 스웨덴 스코네 지역 경찰이 이른바 '집시 명단'이 언론에 노출됐다. 이를 두고 민족 차별 논란에 들끓고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번에는 '동성애자 명단'이 경찰 내에 존재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스톡홀름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레이프 GW 페르손은 스웨덴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스코네 경찰의 집시 명단을 담은 비밀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다. 집시 명단에는 500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중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많았고,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가중됐었다.

레이프의 주장에 따르면 스톡홀름 경찰이 가지고 있던 동성애자 명단은 과거 그가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한다. 동성애자 명단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1979년까지 스웨덴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질병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충분한 사유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들이 이렇게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했었던 롤프 그라네르도 과거 동성애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970년대 초 경찰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 명단은 동성애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지하철 경찰들의 업무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동성애자 명단은 1970년대 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이스타인 사란 기자

정리=김은재 인턴기자

돼지고기 드레스 입은 소녀

모스크바 광장에 등장 '눈길'…"올바른 식습관 홍보 위해 퍼포먼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푸시킨스카야 중앙광장에 '돼지고기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바른 먹거리와 식습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단체 '음식에 관한 진실'의 파쉬 다샤 구사로바.

구사로바는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예전에 자신의 쇼를 위해 고기로 만든 드레스를 입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람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와 식습관에 대해 알리고자 이 드레스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구사로바가 입은 고기 드레스는 총 15kg의 돼지고기로 만들어졌다. 이 드레스는 식재료의 낭비를 막고자 식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지방 속이 많은 돼지고기로 제작됐다.

구사로바는 "고기 드레스를 착용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다"며 "피부에 닿는 고기의 느낌이 차가울 뿐 아니라 얇게 저민 고기를 이어 붙여 만든 드레스가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걷느라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매일 이런 드레스를 입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올바른 식습관 홍보를 위해서 참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사로바는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결국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면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유제품과 마요네즈, 달걀 등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사로바가 거리에 등장해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동안 같은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에 관한 홍보물을 나눠줬다. 하지만 시민들은 음식에 관한 진실 단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고기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일부 청소년들은 '고기 옷을 입은 모델'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노인들은 손녀딸을 걱정하듯 쌀쌀한 모스크바 날씨에 고기 드레스만 입은 구사로바가 춥지는 않은지 물으며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투슬리나 카로리나 기자 정리=조선미 기자

SNS족이라면 이 정도 찍어줘야!

공감IT리뷰 NX2000

침체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나홀로 승승장구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의 휴대성과 렌즈교환식(DSLR)카메라의 성능을 고루 갖춘 미러리스 카메라는 대세 중 대세다.

NX2000은 삼성전자의 미러리스 카메라 NX 시리즈의 보급형 모델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기능이 많은 디지털 카메라는 다루기 까다롭게 여겨지는데 NX2000은 카메라 초보라도 접근이 용이하다.

NX2000은 스마트폰 터치방식으로 간편히 카메라를 작동하게 한다. 3.7인치 대화면 풀터치 스크린으로 사용성은 높였다. 한 손에 쏙 들 수 있는 디자인과 228g의 무게도 큰 장점이다.

삼성전자의 장기인 스마트폰 연동도 눈에 띈다. 스마트폰에 삼성 스마트카메라 전용 앱을 내려받은 후 와이파이를 실행시키면 카메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는 촬영 기능과 전문가급 촬영 모드 지원 등으로 사진 찍는 재미도 더했다.

NX2000은 SNS 애용자와 DSLR 구입을 망설이던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촬영 스타일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할 것을 추천한다. 가격은 70만원대. /임호경기자 ungkim@

'텐트 속 극장' 전성시대

캠핑바람 타고 인기 솟는 미니 빔 프로젝터 제품들 가격·무게도 '스몰 바람'

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며 야외에서 간편하게 영화나 동영상 시청을 바라는 이들에게서 '미니 빔 프로젝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MBC '우리들의 일밤-아빠! 어디가?', KBS '해피선데이-1박2일' 등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캠핑 인구가 꾸준히 늘며 약 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캠핑족의 증가에 힘입어 캠핑 관련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니 빔 프로젝터다. 기존 회사나 학교 등에서 이용되는 프로젝터와 달리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소형 빔 프로젝터는 성능은 업그레이드되고 가격은 낮아지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미니 빔 프로젝터는 벽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화면으로 사용해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캠핑 시에는 캠핑용 스크린을 이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미니 빔 프로젝터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100만원 이상의 고가 프로젝터와 달리 최근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도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벤처기업 이노아이오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 '스마트빔'은 가로·세로 4.5cm에 128g의 무게를 자랑한다. 20만원대 후반인 이 제품은 월평균 3000여 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이 같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스마트빔 아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미니 프로젝터 'EAD-R10' 역시 2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태블릿 PC와의 효과적인 연계과 풍부한 성능을 자랑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640×360 nHD 해상도에 20안시 밝기를 지녔으며 108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디비코의 티빅스 V1은 해상도는 320×240에 48안시 밝기로 다소 떨어지지만 10만원 초반대의 낮은 가격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캠핑을 즐기면서 스마트폰에 영화를 담아 큰 화면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미니 빔 프로젝터의 인기 비결"이라며 "특히 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고도화되면서 가정에서도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Btv서 본방 끝나고 10분내 VOD 다시보기

SK브로드밴드는 자사 IPTV 서비스인 B tv에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10분 내에 주문형비디오(VOD) 다시 보기를 업데이트하는 '저스트 텐 미닛(Just 10 Minutes)'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텐 미닛 서비스는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 업데이트 시간을 줄여 다시 보기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콘텐츠 VOD 변환 및 실시간 전송 기술을 적용하고 업데이트 전 과정을 자동화했다.

텐 미닛 서비스는 KBS와 SBS 방송에 적용되며 유료 VOD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모바일 쿠폰 판매시 환불규정 명시해야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잦았던 모바일 쿠폰이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 조건과 환불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 쿠폰 판매 시 환불 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쿠폰은 지난해 이용금액이 10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빈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이나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적시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롤드컵' 금메달 놓고 한·중 대결

SKT T1·로열클럽 황주 결승행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 우리나라 SKT T1(위 사진)이 진출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배급하는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시즌 3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결승 진출팀이 가려졌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5일 정오(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결승전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SKT T1과 중국의 로열 클럽 황주(아래)가 격돌한다. 두 팀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와 챔피언 트로피 '소환사의 컵'을 놓고 전 세계 LoL 팬들을 열광케 할 전망이다.

현재 LoL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www.lolesports.com)에서 진행 중인 우승팀 예상 투표에서 SKT T1이 58% 지지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아시아 대표는 "약 3주간 펼쳐진 조별 리그 40경기, 8강전 10경기, 준결승 9경기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두 팀이니 만큼 선수들이 후회 없이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회기자

(주)콜렉트대부 [2011-서울강남-0084]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Consumer Loan Finance Association
회원번호 A00024

"500만 넘으면 수영복 무대인사"

수영 소재 '노브레싱' 제작발표회

요즘 '대세남'의 쌍두마차로 떠오른 이종석과 서인국이 영화 '노브레싱'에서 박태환을 롤모델 삼아 수영선수 변신에 도전했다.

연출자인 조용선 감독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이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두 배우의 캐릭터는 모두 박태환을 롤모델로 삼은 것"이라며 "만약 박태환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당하지 않았다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의 박태환과 미래의 박태환을 골고루 담았다"고 밝혔다.

수영계 1인자인 정우상을 연기하는 이종석은 "영화 촬영이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제작 일정과 겹쳐 상당히 힘들었다"며 "수영은 영화 촬영을 앞두고 처음 배운 데다 수영선수처럼 탄탄한 몸을 만들어야 됐다. 운동만큼이나 식단 조절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극중 정우상과 라이벌을 형성하는 은둔형 수영 천재 조원일 역의 서인국은 "스크린 데뷔작에서 비로 주연을 맡아 큰 영광"이라면서 "실제 선수들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먹더라. 영화 초반에 말랐었는데 (선수들을) 따라 먹다 보니 촬영하면서 살이 쪘다"고 덧붙였다.

정우상과 조원일의 소울메이트인 정은 역으로 스크린 신고식을 치르는 소녀시대 유리는 "소녀시대 멤버들이 시사회에 모두 오기로 해 실은 걱정"이라며 "이종석씨와 서인국씨 모두 매력이 넘쳐흘러 한 명만 고르기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 혹의 개성파 박철민이 "전국 관객 500만 고지를 넘기면 출연진 모두가 수영복을 입고 무대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자 유독 유리만이 손사래를 쳐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31일 개봉.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서인국·유리·이종석(왼쪽부터)이 영화 '노브레싱'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25화 글 그림 이기

800만…'관상' 환상의 질주

3주째 흥행 1위…할리우드 공포물 '컨저링' 뒤이어

팩션 사극 '관상'이 3주째 흥행 정상을 질주하며 마침내 800만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관상'은 27~29일 전국에서 64만1785명을 더해 11일 개봉 이후 전국 누적관객 수 804만6362명을 기록했다.

이 영화는 추석 연휴를 거치며 800만 명까지 오는 동안 대진운 덕을 톡톡히 봤다. 한 주 앞서 출발한 '스파이'(324만4332명)를 제외하곤 별다른 적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2일 개봉될 유아인·김해숙 주연의 '깡철이'와 설경구·엄지원 주연의 '소원', 9일 공개될 김윤석·여진구 주연의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거센 추격에 얼마만큼 견디느냐가 1000만 흥행작 등극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할리우드 공포물 '컨저링'의 조용한 흥행 돌풍도 지난 주말 극장가를 강타했다. 44만8158명을 동원해 '관상'의 뒤를 이었다. 17일부터의 전국 누적 관객 수는 155만9738명으로 '식스센스'(160만 명)에 이어 해외 공포영화로는 역대 국내 흥행 순위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1970년대 미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귀신 들린 집' 소동 실화를 '쏘우' 시리즈의 제임스 완 감독이 스크린에 옮긴 '컨저링'은 순전히 "무서운 장면 없이도 무섭다"는 입소문으로만 흥행몰이를 일으키고 있어 더욱 화제다. 수입·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마저도 "우리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조성준기자

관상

컨저링

척추 웃게 하는 '퍼팅학 개론' 밑줄 짝

'골프의 계절' 가을 허리부담 줄이는 라운딩 요령

골프의 계절'이 찾아왔다. 쾌청하고 선선한 날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필드에 나가있는 골프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골프 자세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특히 스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퍼팅은 허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퍼팅,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2.2배 하중 실려

아마추어도 잘 하지 않는 퍼팅 자세를 취해 미셸 위 선수가 골퍼들 사이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퍼팅 때문에 애를 먹이온 미셸 위 선수는 퍼터를 교체하기도 하고 유명 교습가에게 특별 코치도 받았지만 효과가 적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극단적인 자세였다. 이를 보고 따라 하는 골퍼도 생기고 퍼팅에 자신이 없는 아마추어들도 종종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퍼팅 자세는 허리 건강에 독이다.

그중 몸을 숙이고 퍼팅하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하중이 2.2배나 실린다. 보통 허리를 굽히고 퍼팅이나 피칭을 하는 골퍼들은 주로 척추 4, 5번과 엉덩이 척추뼈 등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드라이버처럼 순간적인 것보다 구부림 자세로 집중해야 하는 동작일 때 허리 관절에 더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골프로 인한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근육이 풀리기 전에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급히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라운딩 전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허리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새벽 라운딩 피하고 롱 퍼터 사용하는 것이 좋아

허리가 약해져 근력이 떨어져 있는 골퍼라면 가을철 새벽 라운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벽에는 체온과 혈압이 낮은 상태로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른 아침에 골프를 시작했다면 초기 3~4홀까지는 가급적 카트를 타는 것보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체온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허리에 크고 작은 통증이 있는 등 허리가 약한 골퍼는 스트레칭과 함께 필드에 나가기 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허리 및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운동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미루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통증을 방치하며 운동을 강행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수 있으며 나중에 치료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송형석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원장은 "골프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스포츠인만큼 부상 위험성이 커 본인에게 맞는 운동량과 올바른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리 힘이 부족한 사람은 롱 퍼터를 사용하고 드라이버샷을 할 때도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말고 업라이트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유지홍기자 hcyu38@metroseoul.co.kr

천식환자 흡입기 '칸디다 감염' 조심

식약처 사용 매뉴얼 배포 사용후 입안 물로 헹궈야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흡입제 의약품,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흡입기를 사용할 경우 입안에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흡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입제 의약품 사용 방법을 담은 매뉴얼 '흡입제 사용 시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흡입제의 종류는 휴대 가능한 정량식 흡입제와 건조분말 흡입제, 의료기관에서 쓰는 연무기가 있다. 모든 흡입제는 사용 전 숨을 충분히 내쉰 후에 약물을 흡입하고 약 5~10초가량 숨을 참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흡입제를 1회 이상 사용할 때에는 약 1분 정도의 간격을 둔다.

건조분말 흡입제는 용기에 담긴 가루 상태 약물을 환자가 호흡과 함께 흡입하는 형태인데, 숨을 충분히 내쉰 후 깊게 들이마시되 용기 안으로 숨을 내쉬지 않아야 한다. 분말 형태의 약물이 습기에 노출되면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아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형태에 관계없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하는 흡입기를 쓰는 환자는 입안에 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칸디다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흡입 후 입안을 물로 헹구고 입 주변에 묻은 약물도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흡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급성 악화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개인별 상태에 따라 적절한 흡입제 선택 및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재현기자

'핑크리본의 계절' 함께 즐겨요

유방암 인식의 달 맞아 퍼레이드 등 행사 풍성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유방암 인식 향상을 높여줄 2013 핑크리본 캠페인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주최하는 세계유방암학술대회는 10~12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된다.

11~12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는 '함께 유방암을 이겨내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 공식 행사가 펼쳐진다. 핑크리본 한복 패션쇼, 핑크리본 행동 서약, 핑크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또 청계광장 인근의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 핑크 테이블을 설치해 핑크리본와 캠페인 브로슈어, 자가진단카드 등을 배포한다.

이에 앞서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13 핑크리본 합창제가 열린다. 지난해 시작된 합창제는 유방암 환우를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7개 병원의 유방암 환우 합창단이 참여한다.

유방암 전문의로 구성된 핑크닥터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튼튼병원 의료진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연수'

차세대 치료법 도입 눈길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튼튼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지난달 28일 강동 튼튼병원에서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의료진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수회는 차세대 디스크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 도입과 함께 튼튼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의 기술 향상과 시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양강석 척추전문의의 시술 강연과 시술, 민병식 강동 튼튼병원장의 시술 등이 진행됐으며 시술이 끝난 뒤에는 케이스 스터디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 튼튼병원은 연수회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각 지역 튼튼병원 회의실로 전송했으며 연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박춘근 튼튼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튼튼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니레이저디스크시술은 절개 없이 탈출된 디스크를 감압 혹은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내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과 고령의 환자들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 문의 www.tntnhospital.com /황재용기자

환절기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폐질환자는 감기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감기 예방을 위해 과일·채소·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7	6		
1		8			4		9	
	2		5					
	6		1					4
5					9		3	
					3		8	
	3		4			7		2
		9	8		2			1

	5	9						
						2	6	
			4	5				7
					8	1		4
5	1			6			2	3
4		2	1					
2				1	7			
	3	8						
						4	5	

스도쿠 정답

알찬지구-보누스
인사 스도쿠 플래티넘 (카미를 리오스 지음)

친환경,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북극 빙산 소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UN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남극 빙산 역시 2050년에 사라질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닌 정해진 수순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에 아름다운 항구도시에서 전설의 수중도시로 바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은 뉴욕·상하이·부산의 일부를 육지에서 바다로 만들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여서 일반인은 실감하기 어렵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홍수·극한 지진이 빈번해지니 웬만한 재해는 놀랍지도 않다. 심지어 기업은 기후 재앙을 마케팅의 요소로 잡고 이미지 제고 프로모션과 함께 친환경 제품·서비스 판매에 열을 올린다. 인류의 사회의 위험은 멀고, 매출과 이익은 가깝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주에 최고경영자(CEO) 대상 트렌드 특강 '요즘 트렌드는 에코(ECO) 친환경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트렌드'라는 말의 의미 중 '흐름'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또 트렌드가 미래 가치가 있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도 유효하다. 하지만 사회를 넘어 인류의 문명의 향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 차원은 달라진다. 친환경은 트렌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환경의 개선을 이루는 일치단결이 필요하다.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Mind)와 자세(Attitude)의 합의를 이루자. 그래야 무엇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남의 불행이 아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의 문제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어느 주체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지구적 재앙을 성과 홍보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활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트렌드연구소(www.ft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관두고 공무원 시험칠까 지금은 돈 모으기에 관심둘때

아하하하♥ 여자 83년 11월 2일 음력 오후 6시
남자 80년 1월 4일 양력 오전 4시

Q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전에 상담 문의했는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봤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낙방했습니다. 제 사주는 2014년부터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아직 빚이 많아서 당장에 일을 그만두면 또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게 좋은지요.

A 나무가 물 밭에 미르는 모습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독창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인수(印綬)운이 들어 책과 관련된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고 있으니 자신을 실기해야 하는 일이 되어 생활 빛에 부담을 떠안게 되었군요. 2014년에도 천간(天干)에서 힘을 걷어가는 현상이라 수월치는 않습니다. 여러 현황상 사정이 허락치를 않으나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돈에 중심을 둬보십시오. 운과 노력이 공존해야하는데 어느 한쪽이 미흡하면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색깔자에 상관(돈 버는 기술)의 기운이 강하다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돈 쪽으로 힘을 싣는 자격증에 도전하십시오.

이직 6번째… 방황 언제 끝날지 직장운 쇠하여 또 옮기면 백수

Wisi~ 여자 80년 11월 30일 음력
남자 78년 10월 26일 양력

Q 저는 34세나 됐는데 안주하지 못하고 벌써 이직만 6번째입니다. 저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갑갑합니다. 역마살이 있는 건지 자꾸 여행만 가고 싶고 한곳에 안주하질 못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과 집 모두 옮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사주 용어로 풀이를 한다면 지살(地煞)이 있어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말을 잘하며 활동적이라 직장운이 자의, 타의 반반으로 이동수에 놓입니다. 식록과 재물이 있어 일을 추진하기만 하면 성취를 볼 수 있는데, 칠살(七殺)을 극하는 오행의 제어로 시작을 왕성이기만 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으니 자신을 알고 환경에 대처를 하십시오. 직장운이 쇠약(衰弱)을 쇠하여 병들고 사망하는 흉액으로 흘러 옮기면 백수로 오래 지내게 되니 자제하세요. 옮겨봐야 도토리 키 재기 같은 곳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곳에서 볼 생각을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일 (음 8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잔만 올려는 말직 차단하라. 60년생 작은 것이 다 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72년생 뜻이 모이면 사람 많이 반나라. 84년생 기분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탈을 친다.

소 49년생 진한에 후광이 모셔집 본다. 61년생 배우자 투정에 예민하게 반응 마라. 73년생 손오공이 여의봉을 잃은 격이다. 85년생 행복은 마음속에 있음을 명심할 것.

호랑이 50년생 위기감 느낄 때 치고 나가라. 62년생 지방인지는 자금에 비상 걸린다. 74년생 중재한 일은 어떻게 심사할 듯. 86년생 생각했던 일에 변수가 생긴다.

토끼 51년생 지갑 열면 대접이 달라진다. 63년생 자신감으로 인한 말씀 조심할 것. 75년생 돈이 되는 귀중한 정보 손에 넣는다. 87년생 운기가 필 때하니 걷기운동 잊도록~

용 52년생 올라 큰 자녀가 있어 든든~ 64년생 상황이 어려워도 신의 지켜야 한다. 76년생 편한 사이라도 격식은 지켜라. 88년생 지나친 인맥은 신뢰만 잃는다.

뱀 53년생 경각심 가져야 자리 지킨다. 65년생 남동쪽이 길하니 심조하라. 77년생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중용의 처신이 필요하다. 89년생 시작된 일은 마무리 신경 써라.

말 42년생 이미 아는 뻔한 일에도 관심 가져라. 54년생 자녀에게 덤보기 드러낸다. 66년생 아랫사람 허물은 너그럽게 봐줘라. 78년생 삶에 활력소 될 길이 생긴다.

양 43년생 밖으로 나가면 기분 전환된다. 55년생 대접받으려면 상대방을 대접하라. 67년생 변화를 수용해야 손해가 없다. 79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산만 지곤~

원숭이 44년생 오늘 이전하면 다른 기약하라. 56년생 금전 거래는 뒤탈이 생긴다. 68년생 인연이 있는 일이니 신세한탄 마라. 80년생 꿈수 부리면 골이 불령해진다.

닭 45년생 관을 키워야 이익이 늘어난다. 57년생 문서 관은 말썽이 생기니 유의~ 69년생 뜻이 확고하면 도우미가 줄을 선다. 81년생 가난해도 꿈은 재벌처럼 꿔라.

개 46년생 나이는 잊고 도전정신 보여줘라. 58년생 주거지를 떠나면 피곤해진다. 70년생 넉넉한 자금이 들어와 활력이 넘치는구나. 82년생 눈 돌아갈 정도로 멋진 이성 만난다.

돼지 4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59년생 집안일은 생각대로 말고 나가라. 71년생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온다. 83년생 인연의 뜻 큰 격려에 고민이 한방에 싹~

"엄친아 로맨틱가이로 좀 떴어요"

'우결' 출연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윤 한**

MBC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에 이소연과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윤한(30)이 '엄친아 로맨틱가이'로 주목받으며 여심을 설레게 하고 있다. 출연 전까지 대중에게 생소했던 그는 주변의 달라진 반응에 "나를 알아보거나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흥미롭고 기분이 좋다"면서 청묵한 비명을 질렀다.

#이소연과 커플호흡 재밌어

우결에 출연하는 세 커플 중에서 태민·손나은이 풋풋한 첫사랑 같은 커플이고 정준영·정유미가 티격태격하는 재미있는 커플이라면, 윤한·이소연은 30대 나이에 걸맞게 진지하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윤한은 이소연 앞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등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중이다.

출연 계기는 박은영 KBS 아나운서와 소개팅을 했던 KBS2 '맘마미아'와 MC 겸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던 MBC '아름다운 콘서트' 덕이었다. 당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우결 제작진이 여심을 사로잡을 새 인물로 180cm가 넘는 키와 잘생긴 얼굴에 로맨틱함과 화려한 이력까지 갖춘 윤한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어색하고 얼떨떨하지만 재미있어요. 지금은 그저 열심히 촬영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같아요. 사실 소연씨를 처음 만났을 땐 얼굴은 낯이 익었지만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성격이 좋으신 데다 녹화할 때마다 15시간 여심을 함께해서 앞으로 진짜 정이 들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출연 후 소연씨가 출연하는 KBS2 '루비 반지'를 챙겨봤고, 추석 때는 안부 문자도 주고받았죠."

화면 속 로맨틱한 모습이 실제와 비슷하냐는 질문에 "비슷한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실제 연애 스타일은 진지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편이다. 사귈 때마다 늘 결혼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스타일이라 연애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대체로 긴 편이었다"고 털어놨다.

#혜화시절 길거리 캐스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불리지만 음악감독과 가수,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 등으로도 활약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다. 2006년 버클리 음악대학 영화음악작곡학과를 졸업한 후 2010년 정규앨범 1집 '언더시티'로 데뷔했다.

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엄친아'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업인이고, 형은 정형외과 의사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윤한도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다.

"중학생 때까지는 키가 작았고 돋보기 같은 안경까지 쓰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공부만 할 법한 아이였죠. 그러다 고등학생 때 키가 갑자기 컸고, 어머니의 권유로 안경을 렌즈로 바꾸면서 외모가 달라졌어요. 그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 SM엔터테인먼트와 모델 에이전시를 찾으면서 막연히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자연히 성적은 떨어졌죠. 그러자 어머니가 음악이 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해보라고 하셔서 버클리 음대에 입학했어요."

뮤지컬·MC까지 다재다능男
실제 연애 스타일 진지한 편
예술의전당 공연 꿈도 이뤘죠

데뷔 후 주로 피아노 선율 위주의 감성적인 곡들을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12월 발매할 새 앨범은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로 작업 중이다.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밴드 사운드 위주의 곡으로 앨범을 구성했다.

특히 우결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음악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11월 데뷔 이래 처음으로 서울 예술의전당과 수원, 안산 등을 도는 전국투어 콘서트 '텐 오브 피아노'를 펼친다. "음악은 저에게 뜻깊은 도약의 해예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게 목표였는데 3년 만에 꿈을 현실로 이뤄서 행복해요."

/박진영기자 talk0427@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 표지디자인/ 디자인/김예원

극단적 딸 차별…막장 또 통했다

'왕가네 식구들' 시청률 30% 돌파 / "저월드도 기대해달라"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문영남 작가의 특기인 '막장 가족의 활약'에 힘입어 방영 10회 만에 '국민 드라마'의 분수령인 시청률 30% 벽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분 10회는 전국 기준 30.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8월 31일 19%로 출발해 바로 다음날 20%를 넘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30%를 돌파했다. 전작 '최고다 이순신'이 30회인 방송 4개월 만에 30%를 넘어선 것을 훨씬 앞선 수치다.

3대가 함께 생활하는 왕씨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의 편애에 대한 자식들의 갈등 등을 그린 이 드라마의 인기 일등공신은 단연 '막장 모녀' 캐릭터다.

엄마 이앙금(김해숙)이 철없는 첫째 딸 왕수박(오현경)만 편애하고 둘째 딸 왕호박(이태란)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구박하는 내용은 시청자들이 욕하면서 보도록 만들고 있다. 시청자들은 "친자식을 향한 극단적인 차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과 공분을 동시에 쏟아내는 중이다.

29일 방송에서는 왕호박의 무능력한 남편인 허세달(오만석)이 직장 상사인 은미란(김윤경)과 불륜을 시작하는 등 가족 시간대에 보기 다소 불편한 장면을 내보내 '막장'의 강도를 높였다. 셋째 딸 왕광박(이윤지)은 언니인 왕호박의 시누이 허영달(강예빈)과 최상남(한주완)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비판하는 쪽만큼이나 지지하는 쪽도 늘어나고 있다. 시청자들은 어머니의 구박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힘들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왕호박과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 후 빅뱅 얹혀 사는 왕수박의 남편 고민중(조성하)에게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인물 설정과 줄거리 전개는 문 작가의 전작 '조강지처 클럽', '수상한 삼형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 작품들 역시 방영 내내 '막장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30% 이상의 높은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제작 관계자는 "고군분투하는 고민중과 왕호박의 모습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현실 사회를 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본다. 앞으로 고민중의 본격적인 '저월드'가 시작되면서 더욱 흥미로운 재미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 기자

star bag

"양다리·폭행설 사실무근"

중견배우 백윤식이 최근 결별한 30세 연하의 방송사 기자 K씨가 주장한 '양다리설'과 '폭행설'을 반박했다.

소속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백윤식씨에게 확인한 결과 없고 지난 건 맞지만 교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백윤식의 두 아들인 백도빈과 백서빈이 폭행했다는 주장 역시 대화 중에 실랑이를 한 정도"라면서 "백윤식씨 가족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캐스팅

배우 이지아가 김수현 사단에 합류한다.

30일 소속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김수현 작가의 신작인 SBS 새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 최근 출연을 확정 지었다. 극중 오현수(엄지원)의 여동생이자 이순심 여사의 막내딸 오은수 역할을 맡아 변신을 꾀한다. 한편 11월 방영될 이 드라마는 어머니와 두 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내달 단독 아시아투어 나서

JYJ 김재중이 다음달 단독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소속사는 지난달 30일 "이달 말 정규 1집을 발표하는 김재중이 다음달 2~3일 삼성동 코엑스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을 돌며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연다"면서 "1집에 다양한 곡 장르를 담을 예정이어서 이번 투어는 관객과 호흡하는 록 페스티벌 분위기로 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서 싱글 '리퀘스트' 공개

인피니트가 태국에서 신곡을 처음 공개했다. 인피니트는 지난달 28일 태국 방콕 선더돔에서 열린 '삼성갤럭시와 함께하는 2013 인피니트 원 그레이트 스텝'에서 새 디지털 싱글 '리퀘스트'를 라이브로 선보여 4500여 현지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PHOTO

죄수복 입어도 빛나는 미모 늘 우아하기만 했던 황정음이 KBS2 수목극 '비밀'에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극중 남자친구 도훈(배수빈)을 대신해 뺑소니 사고의 범인으로 내몰린 유정 역의 황정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제작진의 마음까지 어르게 했다는 후문이다.

▶ 예쁜 사람은 뭘 입어도

/조성준 기자

'다크+섹시' 샤이니

'에브리바디'로 팀 활동 재개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새 미니앨범으로 '가을걷이'를 알린다.

지난달 3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에브리바디'를 발표하고 국내에서 팀 활동을 재개한다.

올 2월 '드림 걸'과 4월 '와이 소 시리어스'로 상반기를 석권했던 샤이니의 이번 음반에는 두 노래처럼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신곡들이 수록된다.

소속사는 새 음반 공개에 앞서 자사 SNS를 통해 막내 태민의 티저 이미지를 선보였다. 태민은 짙은 스모키 화장으로 어두우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다.

현재 샤이니는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 '샤이니 월드 2013 보이스 미트 유'를 진행 중이다. 멤버들 가운데 민호는 MBC 새 드라마 '메디컬 탑팀'에, 태민과 키는 같은 방송사의 '우리 결혼했어요'에 각각 출연 중이다.

/조성준 기자

신정아 방송MC 기용 무산

학력 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의 방송 MC 데뷔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다음달 첫 방송될 시사 버라이어티 토크쇼 '강적들'에 신씨를 공동 MC로 낙점했으나 안팎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자 최근 취소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6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는 시사쇼다.

/탁진현 기자

보아 데뷔작 '연애를 부탁해' 이례적 재방송

보아의 드라마 데뷔작인 KBS2 2부작 '연애를 기대해'가 단막극으로는 이례적으로 재방송된다.

제작사는 지난달 30일 "1~2부가 1일 오전 11시50분부터 연속 방송된다"면서 "방송이 끝난 후 쏟아진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재방송 편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각양각색 연애관을 지닌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시청률은 3%대에 그쳤지만 SNS 연애 코칭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보아를 비롯한 최다니엘·임시완·김지원 등 연기자들의 호연, 감각적인 연출로 방영 당시 화제를 모았다.

/탁진현 기자

공항철도 타고 향기로운 '국화의 바다'로

수도권 최대규모의 '제 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인천 검암역~행사장 10여분 간격 셔틀버스 운행

가을꽃의 대명사인 국화와 코스모스를 주제로 한 가을꽃 축제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인근 드림파크 내 녹색비이온단지에서 계속되는 국화 축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인 5만㎡의 방대한 축제장을 배경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메인 전시 공간인 국화 군락지에는 형형색색의 국화와 코스모스 등이 가득한 가을 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그 주변으로 코스모스 군락지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또 국화로 장식한 탑과 용, 악어, 돌고래 등의 조형물들은 사진 촬영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국화 분재와 350m의 박터널 등도 이색적인 볼거리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는다면 모처럼의 나들이 기분을 망칠 수 있다. 행사장인 드림파크에는 현재 승마장과 수영장 등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를 위한 경기장 시설 일부가 건설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때문이다.

이에 드림파크 측은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10여 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검암역 출발 셔틀버스도 평일 15대, 주말 20대 운행으로 대폭 증편했다. 검암역에서 행사장으로 가는 첫차는 오전 9시, 막차는 오후 4시이며, 행사장에서 검암역으로 가는 셔틀버스 막차는 오후 6시30분이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김포공항역, 계양역에서 수도권 전철과 환승돼 검암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가을날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화축제를 일지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황재용기자

입안 가득 '5성급 감탄'

특급호텔들 신메뉴 손짓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특급호텔들이 가을 미각을 깨우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맛의 세계를 소개한다.

JW메리어트호텔 서울은 '세계 뷔페 요리 대전'을 진행한다. JW메리어트호텔 서울의 일식당 미카도와 중식당 만호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그윽한 향이 일품인 자연 송이를 이용한 메뉴를 준비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의 일식당 만요에서는 캐나다산 최고급 랍스터를 이용해 만든 스페셜 일식 메뉴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맛볼 수 있다. 이번 메뉴는 랍스터 미소나베, 랍스터 그레탕, 랍스터 버터구이가 주 메뉴로 제공되는 미니 코스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가든호텔 중식당 왕후는 중국 산둥요리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제철을 맞이한 송이를 비롯해 피로 회소에 좋은 해삼, 삭스핀, 왕새우 등 몸에 좋은 보양 재료들을 이용해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은 다양한 구이 요리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구이요리 특선'을 카페 실란트로 뷔페 메뉴에 추가했다. 구이요리 특선은 10월 말까지 제공되며 다양한 식재료와 이에 어울리는 소스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면 조리장이 조리해 고객의 테이블에 직접 서비스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는 세계 각국의 우수 와인과 맥주를 맛볼 수 있는 2013 가을 와인·비어 페어 '구름 위의 산책'을 개최한다. 와인 페어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비어 페어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린다. 전 세계 300여 종 이상의 와인과 아시아, 유럽 각국의 대표 맥주 10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제천·영동 찍고 파주…서울 밖 깨알재미

이달의 4색 지역축제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 축제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볼 만한 축제들을 소개한다.

세계걷기본부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세계 슬로시티 걷기축제'를 연다. 제천의 비경 청풍리조트와 슬로시티 마을로 선정된 수산면 일대를 걷는 이번 축제는 힐링콘서트, 자드락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6일까지 종합 문화 예술 축제인 '2013 파주 헤이리 판(PAN)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관계와 되기의 예술-생태예술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10개 갤러리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난계 박연 선생을 기리는 '제46회 난계국악축제'는 3~7일 충북 영동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2년 전부터 '영동와인축제'와 함께 열려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김지완기자 [illegible]

'반짝반짝' 동래읍성 부산 동래읍성 경관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다. 동래구는 이달 초부터 복원된 동래읍성 620m 구간에 매일 오후 7시 30분터 2시간 동안 경관조명을 실시하고 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10월 11~13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조명을 비출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인 '해외여행 1번지' 日 오사카

올 상반기 국내 여행객들은 오사카와 도쿄 등 일본의 주요 도시를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은 올해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한 여행지로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홍콩은 3위로 밀려났으며 방콕과 싱가포르가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도시들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엔화 약세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엔화 약세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호텔 객실 평균 가격은 지난해 대비 22% 하락한 15만2457원으로 조사됐다. /황재용기자

공채합격 부르는 '면접 룩'의 공식

보수적 기업 '모노톤 의상+펌프스'·마케팅 분야 '컬러 원피스+블랙 재킷'

취업 준비생에게 화려한 스펙만큼 중요한 것이 면접관을 사로잡는 첫인상이다.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아 취업 합격을 부르는 스마트한 면접룩을 알아봤다.

보수적인 기업의 경우 블랙과 화이트·그레이 등의 모노톤 의상으로 진중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 좋다. 여성복 브랜드 라우드무트 홍보 담당자는 "단정한 이미지도 좋지만 경쟁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돋보이려면 같은 화이트 셔츠라도 다른 소재가 사용됐거나 어깨·가슴 부분에 포인트 장식이 있는 아이템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 소품은 볼드한 액세서리나 컬러백을 들어 포인트를 준다. 면접용 신발로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블랙의 펌프스힐을 추천한다. 면접 시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는 자칫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반면 광고·마케팅·디자인 등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틀에 박힌 복장보다는 지원자의 센스가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다.

부드러운 느낌의 베이지나 코럴 핑크, 톤다운된 블루나 그린 등의 컬러 원피스에 블랙 재킷을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개성 있는 패션이 완성된다.

라코스테 한 관계자는 "따뜻한 컬러인 베이지·핑크는 얌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블루와 그린 등은 트렌디하면서도 똑 부러져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브루노말리 드라이빙 슈즈

금강제화는 가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킨 '브루노말리 드라이빙 슈즈'를 선보였다.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해 착화감이 부드럽고 기능의 유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밑창도 부드러운 가죽과 고무를 써 발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감각 있는 로퍼 모카신 스타일로 디자인돼 신고 벗기가 쉽다. 슈즈 보디에는 레드·옐로·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고, 바깥창에는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계절 앞서가는 '전사 패션' 제일모직의 여성 콜렉션 브랜드 '헥사바이구호(hexa by kuho)'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지구에서 2014년 봄·여름 파리컬렉션을 성황리에 개최, 모델들이 새로운 옷을 선보이고 있다. 구호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정구호 전무는 이번 컬렉션에서 여전사에 영감을 받아 헥사바이구호 만의 고유한 감성을 더한 33벌의 의상과 가방·슈즈 등을 내놔 호평을 받았다. /제일모직 제공

미혼여성들 "결혼은 효리처럼"

80%가 '실속 웨딩' 선호

우리나라 미혼 여성 10명 중 8명은 이효리처럼 실속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가 최근 20~30대 미혼 여성 회원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가 '화려한 드레스보다 나만의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실속 웨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럭셔리한 웨딩을 선택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실속 웨딩을 택한 응답자들은 "이효리·이상순 커플처럼 둘 만의 이벤트로 즐거운 결혼식을 만들겠다" "남의 눈을 의식해 돈을 탕진하고 싶지 않다"는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스타일24의 현창숙 MD는 "실속 웨딩의 아이콘이 된 이효리가 드레스를 직접 사 입은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예비 신부들 역시 드레스는 물론 코르사주·헤어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긴 불황에 실속형 웨딩 스타일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환절기 온가족 한우곰탕 한그릇씩!

강강술래 보양식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큰 일교차로 감기 등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운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보양식 할인 행사를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내달 4일까지 대용량 세트 주문 시 산송식품 당면(300g·15인분)도 덤으로 준다.

사골을 우려낸 국물에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골다공증 예방·기력 보충에 좋아 성인은 물론 수험생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방부제와 색소·조미료 등은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짬짬한우떡갈비(3세트·1080g) 4만2000원)와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 한돈너비아니(3세트·1080g·2만5200원)도 30% 할인한다.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침구 전문 브랜드 '히르체지오'의 원적외선 침구인 퓨리스 차렵이불(23만원)과 상품권(5만원)을 증정한다. 선물로 준비된 침구는 혈액순환 개선·노화 방지·신진대사 촉진·만성피로 해소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편안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선물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헤라 핑크리본 한정판 '쉬어 홀릭 립크림' 출시

● 헤라는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핑크 리본 캠페인을 위한 핑크 리본 리미티드 에디션 '쉬어 홀릭 립크림'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선명한 발색과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인 리퀴드 루즈로 판매 수익금 일부는 한국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후원한다.

SK-II '피테라 하우스' 부산에 전국 세번째 오픈

● SK-II는 팝업스토어인 '피테라 하우스'를 최근 부산 중구 신창동에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11월 3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앞서 SK-II는 지난 2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7월에는 가로수길과 청담동에 피테라 하우스를 각각 열었다.

항균 손 세정제 '아이! 깨끗해' 어린이 그림 공모전

● CJ 라이온의 항균 손 세정제 브랜드 '아이! 깨끗해'는 11월 8일까지 그림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에 맞는 작품을 8절지에 그려 출품하면 된다. 금상 2명에게는 130만원, 은상 2명에게는 70만원 등의 재능 계발비를 준다.

홍명보호 브라질 평가전 출전선수 25명 발표

기성용 뽑히고 박주영 또 빠지고

기성용(24·선덜랜드)이 '홍명보호'에 승선했다. 그러나 박주영(28·아스널)은 이번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 출전할 25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기성용은 6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홍 감독은 "기성용이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대표팀에 들어오면 진정성 있게 다시 사과하라고 제안했다"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박주영에 대해서는 '소속팀 경기 출전'이란 원칙을 강조하며 "더 나은 모습을 바란다. 지금은 대표팀에 들어올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막강 '삼바군단'의 수비진을 공략할 진용으로는 이근호(28·상주), 지동원(22·선덜랜드), 구자철(24·볼프스부르크)이 발탁됐으며, 장신 공격수 김신욱(25·울산)은 이번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조성준기자 when@

<김기태·염경엽>

호통 대신 소통…초보감독의 리더십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2013 프로야구 4강 티켓의 주인이 결정됐다. 2년차 김기태(사진 오른쪽) LG 트윈스 감독과 초보 염경엽(왼쪽) 넥센 히어로즈 감독은 당당히 첫 포스트시즌에 입성했다. 류중일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리고 있고 김진욱 두산 베어스 감독도 2년 연속 가을 무대를 밟는다.

반면 이만수 SK 와이번스 감독은 6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행진을 마감했다. 김시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6연속 가을행을 이끌지 못했다. 선동렬 KIA 타이거즈 감독은 2년 연속 쓴맛을 봤다. 명장 김응룡 한화 이글스 감독은 사상 첫 꼴찌의 비극을 당했다. 신생팀 NC 다이노스 김경문 감독을 제외한 이들에겐 괴로운 가을이다.

야구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변화한다. 감독들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선수들과 소통하고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 감독들이 대세다. 젊은 김기태 감독과 염경엽 감독이 성공한 이유다. 훌륭한 지략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선수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두 감독은 더그아웃에서의 스킨십이 남다르다. 항상 선수들과 포옹하고,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 박수를 치거나 선수들과 손가락을 건다.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 꾹 참는 모습도 동시에 볼 수 있다. 선수를 다그치거나 질책하는 일은 없다.

선수단에서 감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한국의 선수들은 감독의 말 한마디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선수들은 실수 혹은 뛰어난 플레이를 펼치면 본능적으로 더그아웃을 쳐다본다. 그곳에서 감독이 박수 치며 빙그레 웃어주면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아마도 죽도록 뛸 것이다. 요즘 박수 치는 감독들이 잘나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30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 5회초 삼성 박석민이 솔로홈런을 때린 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런 4방! 삼성 날았다

한화에 9-2 대승…'2위 LG'에 1.5게임차 앞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3연패에서 탈출하며 첫 정규리그 3년 연속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삼성은 30일 대전구장에서 계속된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와의 방문경기에서 네 명의 타자가 홈런포를 터뜨려 9-2로 승리했다.

전날까지 3연패를 당하며 2위 LG에 반 게임차까지 따라잡힌 삼성은 이날 두산에 패한 LG와의 승차를 다시 1.5경기로 벌리며 한숨을 돌렸다. 삼성이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다면 역대 최초로 정규리그를 3연패한 팀이 되지만 선두권 순위 다툼이 워낙 치열한 탓에 정규리그 자력 우승까지의 '매직 넘버'는 여전히 남은 세 경기에서의 전승이다.

게다가 삼성은 5경기를 남긴 3위 넥센에 상대전적에서 뒤져 넥센이 올릴 수 있는 최대 승수(75승)보다 나은 기록을 내야 한다.

4위 두산은 잠실 라이벌전에서 유희관의 호투로 갈 길 바쁜 LG의 발목을 잡고 플레이오프 직행의 실낱같은 희망을 살렸다.

KIA는 마산구장에서 NC를 3-0으로 꺾고 7위 자리를 탈환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웠으며 사직구장에서는 롯데가 SK를 7-1로 격파하며 5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30일)

■ 잠실

팀	1-3	4-6	7-9	R
두산	030	200	110	7
LG	000	002	001	3

■ 대전

팀	1-3	4-6	7-9	R
삼성	030	210	300	9
한화	000	000	101	2

■ 사직

팀	1-3	4-6	7-9	R
SK	000	000	001	1
롯데	001	030	30X	7

■ 마산

팀	1-3	4-6	7-9	R
KIA	000	010	020	3
NC	000	000	000	0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m anxious to know what your decision is. 결정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저는 당신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싶어요.
우린 당신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해요.
그는 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말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우세요.

I'm confident you've made the right choice.
I want to persuade you to change your mind.
We're willing to accept your decision.
She refuses to change her mind.
He didn't want to say anything to influence my decision.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하세요.

A I've decided not to go to the conference.
B We're 기꺼이 받아들이는 your decision.

정답 willing to accep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m [confident / positive] you've made the right choice.
2 She [refuses to / is afraid to] make up her mind.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방향, 위치 전치사 to

▶ to는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낼 때 '~로, ~에게'의 의미로 사용된다.

~로, 에서 ~로	to school 학교로 to a party 파티로
~에게	to you 너에게 married to ~에게 결혼시키다
~에 (붙어 있는)	stick to ~에 붙다 addicted to ~에 중독된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복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She took me to a zoo. 그녀는 저를 동물원으로 데려갔어요.
2 Give it to me. 그거 저에게 주세요.
3 I was invited to her wedding.
저는 그녀의 결혼식에 초대 받았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effective use of landscaping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having a real garden and ______ a collection of plants.
(A) simple (B) simpler
(C) simplest (D) simply

02 By the time Clear Blaze Technology's word processing program goes on the market, software engineers ______ its remaining flaws.
(A) will have corrected (B) had been correcting
(C) are correcting (D) will correct

01 조경의 효과적인 이용은 진정한 의미의 정원을 갖는 것과 그저 식물들을 수집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해설 ... and로 연결되는 구조로, and 앞의 having a real garden이 있고 ... (D) simply를 쓴다.
어휘 effective 효과적인, landscaping 조경,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 collection 수집물
정답 (D) simply

02 클리어 블레이즈 기술의 문서 처리 프로그램이 시장에 출시될 때쯤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남아 있는 결함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 'by the time + 현재 시제' 구문은 ... (A) will have corrected가 정답 ...
어휘 word processing 문서 작업, remaining 남아 있는, flaw 결함, correct 수정하다, 고치다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모음 발음 연습

• [ou] vs. [ɔ]

[ou]는 입모양을 동그랗게 하고 '오우'를 짧게 발음하는 소리이며 [ɔ]는 '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오' 소리입니다.

boat 배, 보트 – bought 샀다 / own 자신의 – on ~위에
note 메모 – naught 제로, 영(0) / pole 장대 – Paul 남자 이름

Ex. I sold my own car and bought a boat for my daughter.
나는 내 차를 팔아 딸을 위해 보트를 샀습니다.

• [æ] vs. [e]

[æ]는 턱을 아래로 내리고, 입술은 옆으로 당기며 '애'와 같이 발음하며 [e]는 입을 더 작게 벌리고 '에'와 같이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man 남자 – men 남자들 / and 그리고 – end 끝
half 절반 – help 돕다 / ladder 사다리 – leather 가죽

Ex. Who is that man wearing the leather vest on the ladder?